

강원지역 대학생들의 BMI에 따른 신체이형장애 조사

안소연¹, 오나래², 정미애^{2*}

¹원광대학교 치의학과, ²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of BMI to Body Dysmorphic Disorder among Colleg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Na-Rae Oh¹, So-Youn An² and Mi-Ae Jeong^{2*}

¹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angwon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며 정상이나 저체중에도 체중조절이 일반화 되어 일상에 만연된 외모중시 풍조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사회적분위기로 변지면서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들의 신체 이형장애와의 관련성 그리고 우울과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9월10일부터 21일 까지 강원 소재한 K대학교 보건계열 200명 비보건계열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하여 총 319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는 하체 전부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chi^2=6.97, p<.05$), 허리-배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가장 불만족하였고, 저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덜 불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12, p<.05$). 가슴($\chi^2=8.45, p<.05$)과 유방($\chi^2=6.44, p<.05$)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하체 전부와 몸 전체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정상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허리-배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가슴과 유방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그러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방법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신체 이형장애는 우울증과 연관되기 쉽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Recently, Korean prefer the slim and skinny body. Even though they are normal or underweight, they strive for weight control routinely. Due to the appearance-oriented trend prevalent in our society, severe losing weight for wome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dysmorphic disorder and depression.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BMI. This study was performed of 200 health-related and 200 health-unrelated college students respectively at K college in Gangwon provin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to 21, 2012, and the 3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MI of the female students and their unsatisfied parts of the body, the overweight female student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 entire lower parts of their body($\chi^2=6.97, p<.05$). About the waist and belly, the female students of normal weight were the most dissatisfied but of under weight were less dissatisfied than the other group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chi^2=8.12, p<.05$). About the chest and breasts, the female students of under weight were more dissatisfied than the other group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BMI.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MI of the female students and their dissatisfied parts of the body, the female students of over weight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 entire lower parts of their body and whole body, and the female students of normal weight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waist and belly than the other groups. The female students of under weight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chest and breast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way they want to try for a change of the dissatisfied part of the body. Because this body dysmorphic disorder may be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cause th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s and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needed.

Key Words : BMI, body dysmorphic disorder,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Ae Jeong(Kangwon Univ.)

Tel: +82-10-5472-1929 email: teeth2080@kangwon.ac.kr

Received February 27, 2013 Revised (1st April 26, 2013, 2nd May 29, 2013, 3rd July 5, 2013) Accepted July 11, 2013

1. 서론

현대사회는 tv나 광고 매체를 통해 지나치게 마른몸매를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각장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1]. 우리나라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며 정상이나 저체중에도 체중조절이 일반화 되어 일상에 만연된 외모중시 풍조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사회적분위기로 변하면서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2]. Tucker(1982)의 보고에 의하면 신체상의 대한 만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신체상이 극단으로 갈수록 신체 부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짙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 이처럼 신체상에 대한 만족여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신체 전체의 만족도와 신체 부위별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체질량지수는 자기 몸과 건강에 대한 일종의 판정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이론적인 판단이나 분석기준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체질량지수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생활습관, 식습관, 체중조절실태, 체중감량에 대한 집착, 비만스트레스, 우울 증상 등이 있다[4].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불만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신체의 어느 부분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각한 고통과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신체변형장애라고 한다[5,6]. 이러한 행동양상이 심해지면 이들은 결함을 숨기기 위해 화장 등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게 되며 사회적 공공장소를 회피하고 지속적인 집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어지는 경우가 발생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중독과 신체변형장애가 점차 늘고 있고 과도한 신체에 대한 집착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개인 및 주변 사람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라고 인식 한다기보다는 외모에 지나친 관심 정도로 소소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타인에게 밝히기 꺼리어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변형장애를 지니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추정이 되면서도 그 수를 뚜렷하게 밝히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 원인을 비롯한 예방책이나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7].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들과 신체 이형장애와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9월10일부터 21일 까지 12일 간 강원 소재한 K대학교 보건계열 200명 비보건계열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성의껏 응답되지 않은 자료와 부적절하게 기재된 내용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총 31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Underweight n(%)	Normal weight n(%)	Over weight n(%)	Total n(%)
Variable	Health-Related Majors	32(61.5)	127(66.8)	7(43.8)	166(64.3)
	Health-Unrelated Majors	20(38.5)	63(33.2)	9(56.3)	92(35.7)
Parent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1.9)	1(0.5)	-	2(0.8)
	Middle School	-	13(6.8)	3(18.8)	16(6.2)
	High school	30(57.7)	96(50.5)	11(68.8)	137(53.1)
	University	21(40.4)	80(42.1)	2(12.5)	103(39.9)
Weight	< 50kg	39(75.0)	40(21.1)	-	79(30.6)
	50~59kg	13(25.0)	142(74.7)	4(25.0)	159(61.6)
	60~69kg	-	8(4.2)	11(68.8)	19(7.4)
	≥ 70kg	-	-	1(6.3)	1(0.4)
Height	< 160cm	17(32.7)	69(36.3)	6(37.5)	92(35.7)
	160~164cm	19(36.5)	74(38.9)	7(43.8)	100(38.8)
	165~169cm	14(26.9)	38(20.0)	3(18.8)	55(21.3)
	170~174cm	2(3.8)	8(4.2)	-	10(3.9)
	≥ 175cm	-	1(0.5)	-	1(0.4)
계		52(20.2)	190(73.6)	16(6.2)	258(100.0)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여학생들의 BMI군에 따른 신체변형장애(불만족 부위, 가장 불만족 부위, 변화시도유무, 시도해 보고 싶은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많았고, 과체중은 56.3%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 43.8%보다 많았다. 부모님 학력별로는 저체중 57.7%, 정상체중 50.5%, 과체중 68.8%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체중별로는 저체중은 75.0%(39명)로 50kg 미만이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은 74.7%(142명)로 50~60kg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은 68.8%(11명)로 60~70kg 미만이 많았다. 신장별로는 저체중 36.5%(69명), 정상체중 38.9%(74명), 과체중 43.8%(74명)로 160~165cm 미만이 가장 많았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계열별로는 저체중과 정상체중은 각각 61.5%, 66.8%

3.2 신체 불만족 부위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발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이 가장 불만족하였고,

[Table 2] Comparison of unsatisfactory parts of the body parts

body part	Underweight N(%)	Normal weight N(%)	Overweight N(%)	Total N(%)	χ^2	p	Fisher's Exact Test
Feet	8(15.4)	21(11.1)	4(25.0)	33(12.8)	2.97	0.227	0.185
Calves	20(38.5)	60(31.6)	2(12.5)	82(31.8)	3.82	0.148	0.150
Thighs	16(30.8)	82(43.2)	7(43.8)	105(40.7)	2.66	0.264	0.259
Entire leg	10(19.2)	47(24.7)	7(43.8)	64(24.8)	3.95	0.139	0.140
Butt	7(13.5)	43(22.6)	5(31.3)	55(21.3)	3.05	0.218	0.191
Hips	-	4(2.1)	-	4(1.6)	1.45	0.483	0.676
All lower body	3(5.8)	29(15.3)	5(31.3)	37(14.3)	6.97*	0.031	0.025*
Waist-abdomen	9(17.3)	69(36.3)	3(18.8)	81(31.4)	8.12*	0.017	0.017*
Chest	17(32.7)	32(16.8)	1(6.3)	50(19.4)	8.45*	0.015	0.019*
Breasts	13(25.0)	23(12.1)	1(6.3)	37(14.3)	6.44*	0.040	0.050
Back	3(5.8)	6(3.2)	1(6.3)	10(3.9)	1.01	0.605	0.387
Shoulders	7(13.5)	27(14.2)	1(6.3)	35(13.6)	0.80	0.671	0.850
All upper body	3(5.8)	11(5.8)	3(18.8)	17(6.6)	4.10	0.129	0.138
Back of arm	-	3(1.6)	-	3(1.2)	1.09	0.581	1.000
Entire arms	3(5.8)	28(14.7)	3(18.8)	34(13.2)	3.33	0.189	0.142
Hands	8(15.4)	26(13.7)	1(6.3)	35(13.6)	0.88	0.644	0.807
Whole body	1(1.9)	8(4.2)	3(18.8)	12(4.7)	8.13*	0.017	0.035*
Neck	3(5.8)	12(6.3)	1(6.3)	16(6.2)	0.02	0.990	1.000
Genitals	-	-	-	-	-	-	-
Chin	14(26.9)	53(27.9)	5(31.3)	72(27.9)	0.11	0.945	0.939
Cheeks	2(3.8)	10(5.3)	2(12.5)	14(5.4)	1.82	0.402	0.349
Mouth	5(9.6)	20(10.5)	1(6.3)	26(10.1)	0.31	0.855	1.000
Teeth	21(40.4)	69(36.3)	2(12.5)	92(35.7)	4.28	0.118	0.113
Nose	25(48.1)	81(42.6)	4(25.0)	110(42.6)	2.66	0.264	0.287
Eye	17(32.7)	43(22.6)	3(18.8)	63(24.4)	2.54	0.281	0.286
Eyebrows	5(9.6)	28(14.7)	3(18.8)	36(14.0)	1.22	0.544	0.525
Ears	1(1.9)	6(3.2)	1(6.3)	8(3.1)	0.77	0.680	0.628
Facial hair	3(5.8)	6(3.2)	2(12.5)	11(4.3)	3.52	0.172	0.117
Whole face	8(15.4)	20(10.5)	3(18.8)	31(12.0)	1.64	0.440	0.338
Body hair	13(25.0)	34(17.9)	4(25.0)	51(19.8)	1.59	0.451	0.401
Head hair	10(19.2)	29(15.2)	2(12.5)	41(15.9)	0.63	0.731	0.751
Other	5(9.6)	20(10.5)	-	25(9.7)	1.87	0.393	0.523
Total	52(20.2)	190(73.6)	16(6.2)	258(100.0)			

종아리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허벅지와 다리전체, 엉덩이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고관절 부위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체 전부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97, p<.05$). 허리-배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가장 불만족하였고, 저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덜 불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12, p<.05$).

가슴($\chi^2=8.45, p<.05$)과 유방($\chi^2=6.44, p<.05$)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 하였으며,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등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고, 어깨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며, 상체 전부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팔등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고, 팔 전체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팔등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고, 팔 전체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손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몸 전체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8.13, p<.05$). 목에 대해서는 정상체중과 과체중인 여학생이 저체중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성기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여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턱과 뺨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고, 치아와 코, 눈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눈썹과 귀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고, 얼굴의 털과 얼굴 전체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며, 몸의 털에 대해서는 저체중과 과체중인 여학생이 정상체중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 부위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불만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하체 전부와 몸 전체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정상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허리-배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가슴과 유방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3.3 신체 가장 불만족 부위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중 가장 불만족하는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

[Table 3] Comparison of most unsatisfactory parts of the body parts

Variable	Underweight N(%)	Normal weight N(%)	Overweight N(%)	Total N(%)	χ^2	p		
Calves	7(13.5)	18(9.5)	-	25(9.7)	45.61* (30)	0.034		
Thighs	3(5.8)	31(16.3)	2(12.5)	36(14.0)				
Entire leg	3(5.8)	17(8.9)	3(18.8)	23(8.9)				
All lower body	1(1.9)	13(6.8)	1(6.3)	15(5.8)				
Waist-abdomen	-	14(7.4)	-	14(5.4)				
Chest	4(7.7)	5(2.6)	-	9(3.5)				
Breasts	3(5.8)	4(2.1)	-	7(2.7)				
Shoulders	2(3.8)	-	-	2(0.8)				
All upper body	1(1.9)	2(1.1)	2(12.5)	5(1.9)				
Chin	4(7.7)	18(9.5)	1(6.3)	23(8.9)				
Teeth	4(7.7)	16(8.4)	1(6.3)	21(8.1)				
Nose	4(7.7)	14(7.4)	-	18(7.0)				
Eye	3(5.8)	6(3.2)	1(6.3)	10(3.9)				
Whole face	3(5.8)	8(4.2)	2(12.5)	13(5.0)				
Body hair	2(3.8)	4(2.1)	-	6(2.3)				
Other	8(15.4)	20(10.5)	3(18.8)	31(12.0)				
Total	52(20.2)	190(73.6)	16(6.2)	258(100.0)				

는 바와 같이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종아리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정상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허벅지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다리 전체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5.61, p<.05$). 따라서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다리전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신체불만부위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가장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보고 싶어 하는 방법이 없었고, 과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성형수술을 많이 시도해 보고 싶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여학생들은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방법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5 신체불만부위 변화 시도유무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특별한 식이요법은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고,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은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많이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수술은 BMI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성형수술은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비수술적인 치과 처치는 저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고, 연고 또는 약물은 과체중인 여

[Table 4] Body dissatisfaction within the way you want to try

Variable	Underweight n(%)	Normal weight n(%)	Overweight n(%)	Total n(%)	χ^2 (df)	p
Diet	3 (5.8)	12 (6.3)	1 (6.3)	16 (6.2)	12.39 (14)	0.575
Exercise	8 (15.4)	39 (20.5)	4 (25.0)	51 (19.8)		
Surgery(weight)	1 (1.9)	11 (5.8)	-	12 (4.7)		
Cosmetic surgery	19 (36.5)	54 (28.4)	8 (50.0)	81 (31.4)		
Dental work	4 (7.7)	18 (9.5)	1 (6.3)	23 (8.9)		
Prosthesis	1 (1.9)	7 (3.7)	-	8 (3.1)		
Other	-	5 (2.6)	1 (6.3)	6 (2.3)		
None	16 (30.8)	44 (23.2)	1 (6.3)	61 (23.6)		
Total	52 (20.2)	190 (73.6)	16 (6.2)	258 (100.0)		

[Table 5] Complaints body parts change attempts presence

Variable		Underweight n(%)	Normal weight n(%)	Overweight n(%)	Total n(%)	χ^2 (df)	p
Diet	Yes	14 (26.9)	48 (25.3)	7 (43.8)	69 (26.7)	2.58 (2)	0.276
	No	38 (73.1)	142 (74.7)	9 (56.3)	189 (73.3)		
Exercise	Yes	14 (26.9)	58 (30.5)	7 (43.8)	79 (30.6)	1.63 (2)	0.442
	No	38 (73.1)	132 (69.5)	9 (56.3)	179 (69.4)		
Surgery(weight)	Yes	-	2 (1.1)	-	2 (0.8)	0.72 (2)	0.697
	No	52 (100.0)	188 (98.9)	16 (100.0)	256 (99.2)		
Cosmetic surgery	Yes	6 (11.5)	16 (8.4)	2 (12.5)	24 (9.3)	0.68 (2)	0.713
	No	46 (88.5)	174 (91.6)	14 (87.5)	234 (90.7)		
Dental work	Yes	7 (13.5)	20 (10.5)	2 (12.5)	29 (11.2)	0.38 (2)	0.827
	No	45 (86.5)	170 (89.5)	14 (87.5)	229 (88.8)		
Ointment, medication	Yes	5 (9.6)	21 (11.1)	4 (25.0)	30 (11.6)	3.05 (2)	0.218
	No	47 (90.4)	169 (88.9)	12 (75.0)	228 (88.4)		
Hair transplant	Yes	-	-	-	-	-	-
	No	52 (100.0)	190 (100.0)	16 (100.0)	258 (100.0)		
Prosthesis	Yes	2 (3.8)	4 (2.1)	-	6 (2.3)	0.95 (2)	0.622
	No	50 (96.2)	186 (97.9)	16 (100.0)	252 (97.7)		
Other	Yes	3 (5.8)	9 (4.7)	3 (18.8)	15 (5.8)	5.29 (2)	0.071
	No	49 (94.2)	181 (95.3)	13 (81.3)	243 (94.2)		
Total		52 (20.2)	190 (73.6)	16 (6.2)	258 (100.0)		

[Table 6] Frequency of attempting to change the unsatisfied part of the body.

Variable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Total		F	p
	M	SD	M	SD	M	SD	M	SD		
Diet	10.14	25.78	6.52	19.56	3.57	3.15	6.96	19.90	0.29	0.752
Exercise	3.14	4.13	6.41	17.81	2.29	1.50	5.47	15.41	0.41	0.664
Surgery(weight)	-	-	-	-	-	-	-	-	-	-
Cosmetic surgery	1.17	0.41	1.13	0.34	1.50	0.71	1.17	0.38	0.85	0.441
Dental work	1.00	0.00	1.65	1.27	1.00	0.00	1.45	1.09	1.12	0.343
Ointment, medication	2.20	1.79	6.29	21.27	27.00	48.02	8.37	24.67	1.41	0.261
Hair transplant	-	-	-	-	-	-	-	-	-	-
Prosthesis	1.00	0.00	1.25	0.50	0.00	0.00	1.17	0.41	0.44	0.541
Other	1.00	0.00	20.22	34.52	3.33	3.21	13.00	27.69	0.74	0.497

학생일수록 많이 시도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발 이식은 시도한 여학생이 없었다. 교정기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많이 시도하였고, 기타 방법은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은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은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방법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6 신체불만부위 변화시도횟수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특별한 식이요법은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많이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은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가장 많이 시도하였고, 과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적게 시도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수술은 시도를 한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성형수술은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고, 비수술적인 치료 처치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또는 약물은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많이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모발 이식은 시도한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교정기와 기타 방법은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은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였다.

성형수술은 과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고, 비수술적인 치료 처치는 정상체중인 여학생

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또는 약물은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많이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모발 이식은 시도한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교정기와 기타 방법은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보다 많이 시도하였으나 BMI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은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한 횟수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애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산업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 외식문화의 발전에 따라 신체활동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는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외모 지향적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날씬한 몸매의 중요성을 알게 모르게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힘, 능력, 자유,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환상을 제공하고, 이러한 환상들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한 불만족감과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만들고 있다[8]. 대학생은 생애주기에 중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면서 성인기의 식습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기에 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 의해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마른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체중조절을 무분별하게 시도하는 등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9].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각 군들의 신체 이형장애와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는 하체 전부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97$, $p<.05$). 김정란 등의 신체 불만족 부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고관절부위, 하체 부위, 허리-배, 유방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10], 본 조사에서는 허리-배에 대해서는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가장 불만족하였고, 저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덜 불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12$, $p<.05$). 가슴($\chi^2=8.45$, $p<.05$)과 유방($\chi^2=6.44$, $p<.05$)에 대해서는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에 대해서 과체중인 대상자보다 정상체중과 저체중인 대상자가 더 높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과체중인 대상자보다 많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신체변형장애가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질환이 아니고 가족력과 또 다른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선행연구가 있기에 BMI뿐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요인과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1].

몸 전체에 대해서는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불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13$, $p<.05$). 과체중이 아닌 정상체중과 저체중대상자들이 신체변형장애 즉 부분적인 신체 불만족 부위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부위에 집착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대치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신체변형장애가 또 다른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어져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7].

이상에서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하체 전부와 몸 전체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정상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허리-배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가슴과 유방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여학생들의 BMI에 따름 신체 중 가장 불만족하는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저체중인 여학생일수록 종아리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정상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허벅지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다리전체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BMI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5.61$, $p<.05$). 따라서 과체중인 여학생일수록 다리전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의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가장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체중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보다 성형수술을 많이 시도해 보고 싶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BMI에 따라 신체 불만 부위 변화를 위해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방법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모든 대학생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신체변형장애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Park,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mental health in middle-aged women", M 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1.
- [2] M.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Daily Life Style and Self-efficiency about boys' obesity", M 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0.
- [3] L. A. Tucker,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 to type and body cathexis colle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Vol. 50, pp. 983-989, 1982.
- [4] S. S. Mun, Y. S. Lee,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Exercise, Recognized Body Shapes and Weight Control between Obesity and Underweight of Adolescents", J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8, No. 6, pp. 1337-1348, 2009.
DOI: <http://dx.doi.org/10.5934/KJHE.2009.18.6.1337>
- [5] S. W. Heimann, "SSRI for body dysmorphic disorde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Vol. 36, No.7, pp. 868, 1997.
DOI: <http://dx.doi.org/10.1097/00004583-199707000-00004>
- [6] S. Y. Kim, "Body Dysmorphic Disorder in a Korean Nurse College Student Sample", M S Thesis, Chungnam University, 2007
- [7] M. H. Kim, "The Effect of Negative affectivity, External pressure and Self-Consciousness on Propensity of Body Dysmorphic Disorder", M S Thesis, Catiolic university of Daegu, 2009.
- [8] H. S. Kim, "A Study Weight Control and Expected Obesity Management Program according to Fat Percentag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 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4.
- [9] B. L. Kim, Y. B. Han, Y. G. Jang,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Weight Control, Diet Behavior and Food Habits of College", J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Vol. 2, No.4, pp. 530-538, 1997.
- [10] J. L. Kim, I. S. Jee, S. K. Sin,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Koean Version of the 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BDDE-SR)", J of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Vol. 38 ,No. 4, pp. 754-763, 1999.

- [11] K. A. Phillips, "The Broken Mirr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body dysmorphic disorder", Oxford UniversityPress, pp. 209-232, 2005.

안 소 연(So-Youn An)

[정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 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교수

<관심분야>

소아청소년치과학, 예방치과학, 의료산업기술학

오 나 래(Na-Rae Oh)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석사졸업 (보건학 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수료 (보건학)
- 2008년 3월 ~ 2010년 2월 : 포항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 2011년 8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 산업보건학

정 미 애(Mi-Ae Jeong)

[종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졸업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졸업
- 1998년 3월 ~ 2009년 2월 : 동우대학 부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교육연구, 예방치과학, 노인요양복지학, 보건학